

김남조 후기시에 나타난 노년의식*

구명숙**

차례

1. 머리말
2. 노년의 자각과 사랑의 원숙
3. 안식의 관용적 미학과 재생의지
4.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김남조의 후기시에 나타난 노년의식을 살펴보고 그 존재인적 전환 양상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김남조 시인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혼란과 상처 속에서도 절망과 고통을 넘어 기독교 윤리의식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사랑과 생명을 노래하는 서정시를 발표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랑의 깊이와 폭이 더욱 확대되고 종교적 관점에서 구원의 절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작품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는 1980년대 말 제12시집 『바람세례 (1988)』를 기점으로 노년의식에 대한 시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제13시집인 『평안을 위하여』(1995), 제14시집 『희망학습』(1998), 제15시집 『영혼과 가슴』(2004), 제16시집 『귀중한 오늘』(2007), 제17시집 『심장이 아프다』(2013)에 이르기까지 변모해가는 삶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시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

속에 형상화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남조의 후기 시 세계에 드러난 노년의식과 죽음의 미적 변용은 노화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재생의 의지로 새로운 시적 행보를 보여준다. 이는 시인의 영생의 종교적 세계관과 연계되어 노년의식을 심화시키면서 다른 구원을 찾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초기시에서 보여준 생명력의 확산과 사랑에 대한 집중적 탐구는 후기에 와서 이처럼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노년의 미의식과 재생의지, 긍정적 인생관과 영생주의 세계관 등 새로운 희망시학으로 대주제가 전환된 것이다. 그는 특히 제16시집 『귀중한 오늘』(2007)에서 노년기 생활 속 자신의 의식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확고한 신앙심에 바탕을 둔 노년기 삶의 평화로움과 당당함, 안식과 관용,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식지 않는 생에 대한 열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긴 세월을 통과한 농익은 삶 속에서 시간에 순응하며 늙음까지도 감사하며, 나이 먹음에서 깨닫는 바를 순하게 그러나 엄격한 미적 욕구로 원숙한 경지를 그려내 보이고 있다. 노년기 체력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긍정과 용서와 배려의 관용적 노년의식이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존의 의미로 작품 속에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핵심어 : 노년의식, 생명, 사랑, 긍정적 인생관, 열정, 노화현상, 외로움, 죽음, 감사, 재생의지, 평화로움, 영생주의 세계관

1. 머리말

김남조 시인은 일제 강점기인 1927년 대구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1940년 초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큐슈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귀국한 후 1947년 서울대 예과를 거쳐 1951년 피난지인 부산

에서 서울사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며 성장한 셈이다. 1948년 서울대 재학시절 대학신문에서 “성숙(星宿)”을, 1950년에는 연합신문에 “잔상(殘像)”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53년 시집 『목숨』을 출판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남조는 1930년대 등장한 전세대인 노천명과 모운숙, 그 후세대인 1960년대 시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여성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

기독교적 윤리의식과 휴머니즘, 그리고 신심(信心)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과 ‘생명’에 천착해 온 김남조는 60여년의 시력 속에서 시와 인생에 대한 진실한 탐구와 성찰을 지속해왔다. 초기 시편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목숨만은 건져내야 하는 삶에 대한 사유, 그 생명의 근원이자 원동력인 ‘사랑’에 관한 깊은 성찰을 보여주었고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에 기반을 둔 생명의지를 보여주었다.²⁾

그의 세 번째 시집 『나무와 바람』이 발표된 1950년대까지는 생명을 노래하는 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60년에 펴낸 네 번째 시집 『정념의 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그리움, 목마름 등 사랑의 주제는 그 후 지속적으로 시인의 작품세계를 지배해 왔다고 하겠다.

김남조 시인의 초기 사랑시는 우정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랑에 관한 노래였으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에로스의 정서가 펼쳐지고, 『사랑초서』와 『동행』에서는 사랑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열 번째 시집 『빛과 고요』부터는 나이와 함께 원숙해진 사랑을 담담히 노래한다. 이처럼 존재론과 사랑의 열정에 대한 아픔과 슬픔의 시편들은 후기로 가면서

- 1) 정동매, 『김남조 전후시에 나타난 실존의식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281쪽. 참조.
- 2) 그의 자전적 생애에 관해서는 김남조, 『세 갈래로 쓰는 나의 자전적 에세이』,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7 가을호, 45~50쪽;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편, 『김남조』 구술채록, 2006.12. 21~160쪽 등이 있으며, 김영선, 『삶과 신앙의 문학적 상상력-김남조 시인의 생애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5, 35~44쪽 등을 참조 바람.

한층 신앙적인 면모가 두드러지게 되고 통회 속에서 참다운 사랑과 구원을 찾는다. 특히 시집 『동행』 이후에는 신에의 절대적 귀의가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³⁾

그런데 김남조는 제12시집 『바람세레』(1988)를 기점으로 노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보이는 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평안을 위하여』(1995), 『희망학습』(1998), 『영혼과 가슴』(2004), 『귀중한 오늘』(2007), 『심장이 아프다』(2013)에 이르기까지 변모해가는 삶과 그에 수반되는 가치관의 변화를 형상화해나간 것이다. 특히 열여섯 번째 시집인 『귀중한 오늘』을 살펴보면 노년에 대한 노래가 주류를 이룬다. 시집 제목에서부터 80여 성상을 살아오면서 삶의 ‘오늘’이라는 시간,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노년에 이르러 하루(삶)를 더욱 귀중히 여기는 시인의 진지함과 겸손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6년 후에 펴낸 시집 『심장이 아프다』에서는 노년에 대한 인식을 거의 드러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인은 나이가 더 들어감에도 노년에 대한 인식보다는 유성호가 간파한 바와 같이 “자기 인식 혹은 자기 구원의 테마를 완성하면서, 경험적 주체와 시적 주체가 통합된 발화를 통해 자기구원에 이르는 고전적 영역을 더욱 심화시켰다”⁴⁾고 하겠다.

김남조 시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져왔지만 그의 후기 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주제 중심의 연구⁵⁾와 종교적 관점⁶⁾, 시창작 형식과 내용의 연구⁷⁾ 그리고 비판적 연

3)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14~17쪽; 김재홍, 『사랑과 희망의 변증법』, 『한국 대표시인 101선집-김남조』, 문학사상사, 2002, 303쪽.

4) 유성호, 『은은한 시의 파문으로 가 닿는 궁극적 자기구원』, 김남조 시집, 『심장이 아프다』, 문학수첩, 2013, 165~166 쪽.

5) 이에 대해서는 특히 홍미경, 『김남조 시의 창작방법 연구 : 몸살의 시학과 시적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윤효선, 『김남조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등을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양갑요, 『김남조 신앙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논문, 2008; 이순옥, 『김남조의 신앙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9; 김효중, 『김남조의 카톨릭시

구8)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김남조의 시세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한 선행연구로는 정영애⁹⁾, 채영희¹⁰⁾, 그리고 윤효선¹¹⁾ 등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정영애는 김남조의 시를 효용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독자의 공감을 자아내는 시인의 흡인력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시인의 시세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시대를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김남조 시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적인 내면의식의 변모 양상과 창작정신을 파악하고자 주제를 기준으로 작품들을 생애 주기와 연계하여 고찰한 것이다.¹²⁾

채영희는 초·중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몇몇 작품들을 선정하여 그 내면에 흐르는 기본 주제와 시세계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후기시 속에 나타난 김남조의 문학적 시세계와 내면의식을 소재와 주제를 바탕으로 노년의 미의식, 죽음의 인식과 긍정적 수용 및 우주적 생명관과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¹³⁾

윤효선은 김남조의 시를 초·중·후기로 나누고 초기 시에서는 생명과 원죄 의식을 다루고, 중기 시는 사랑 의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후기 시는 신앙을 통한 삶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¹⁴⁾ 선행연구들에서 모

연구, 『인문과학연구』 7권, 대구가톨릭대학교, 2006 봄호, 165~186쪽 등 다수가 있다.

- 7)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백승민, 『김남조 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김경복, 『김남조 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정연화, 『김남조 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등이 있다.
- 8) 반페미니즘적 비판적 관점의 논문으로는 신은경, 『여성성의 구현으로서 여성 텍스트와 여성문체-김남조 시를 중심으로』, 『한국 페미니즘의 시학』, 동화서적, 1996, 190~224쪽; 비판적시각의 논문으로는 김현, 『상상력과 인간/ 시인을 찾아서-김현 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1. 36~50쪽 등이 있다.
- 9) 정영애, 앞의 논문, 51~201쪽.
- 10) 채영희, 『김남조 시 연구: 죽음의식과 생명의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3.8.
- 11) 윤효선, 『김남조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 12) 정영애는 김남조의 초기 시는 제 1시집에서 제 3시집을, 중기 시는 제4시집에서 10시집으로 보고, 후기 시는 제 12시집부터 제 16시집으로 나누었다. 정영애, 앞의 논문, 16~36쪽.
- 13) 채영희, 앞의 논문, 12쪽.
- 14) 윤효선, 앞의 논문, 27쪽.

두 김남조 시의 후기시를 제 12시집 『바람 세례』(1988)로부터 『귀중한 오늘』(2007)까지로 보고 있다. 그에 따라 볼 때 『귀중한 오늘』(2007) 이후에 발간된 『심장이 아프다』(2013)를 포함하여 후기에 속하는 시집은 총 6권¹⁵⁾이 되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김남조 후기시의 변모 양상에 따른 노년의식의 다면성과 존재론적 전환 양상에 대해 시집 『귀중한 오늘』(2007)을 중심으로 작품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노년의 자각과 사랑의 원숙

김남조 시인의 시의 출발점은 죽음과 슬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쪽끼리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살육의 현장에서 절대결핍과 죽음의 공포, 이별과 죽음이 난무하는 극한의 생존조건 속에서 하나 뿐인 동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납북되는”¹⁶⁾ 엄청난 슬픔이 그를 지배했다. 한국전쟁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적 시련을 겪어야 했으며 그에 따른 인간에 대한 고뇌와 사랑, 갈등, 슬픔이 그의 문학의 자양분이 되었고 그것이 또한 그의 문학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초기시에 해당되는 처녀시집 『목숨』의 발간에서 세 번째 시집 『나무와 바람』이 발표된 1950년대까지 생명을 노래한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파괴와 정신의 분열, 불안 그리고 방황 속에서 시인은 끈질긴 생명의식을 노래한 것이다.¹⁷⁾

15) 후기 시집으로는 『바람세례』(1988), 『평안을 위하여』(1995), 『희망합습』(1998), 『영혼과 가슴』(2004), 『귀중한 오늘』(2007), 『심장이 아프다』(2013)가 있다.

16) 이제인, 『사랑의 철인, 김남조의 시세계』, 『시와 시학』 시학사, 2015 봄호, 195쪽. 참조.

17) 정영애, 앞의 논문, 51쪽; 송기환, 『전후 시단의 형성과 전개-전후의 시와 시단』, 『한국 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308쪽; 서진영, 『김남조론-박애와 참회의 시학』, 『한국 현대 시인론』, 2005, 198~199 쪽; 김영주, 『한국 전후시의 죽음의식 연구』

하지만 이러한 생명력의 확산에 대한 시 의식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온다. 그의 중기 후반의 시에서 후기 시로 접어들면서 변모양상이 나타나는데, 다름 아닌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⁸⁾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57쪽. 참조.

18) 김남조, 『바람세레, 시를 쓸 때』, 『바람세레』, 문학세계사, 1988, 153쪽; 같은 이, 『절망적 연애의 그 대상을 바라보듯이』, 『귀중한 오늘』, 시학, 2007, 160~161쪽; 배봉한, 『우리 함께 삶을 좋아 합시다』, 『경향잡지』,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2006, 12~41쪽; 이길연, 『수도자의 아득한 道程, 구원에 이르는 사랑시학』, 『영혼과 가슴』, 해설, 새미, 2004, 169쪽.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설일』, 전문 (『설일』, 1971)

위 인용된 시는 일상의 사물을 바라보다 얻은 깨달음을 통해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스스로의 변화를 그리고 있다.¹⁹⁾ 이 작품의 제목은 글자 그대로 ‘눈 오는 날’을 의미한다. 또한 비슷한 발음의 ‘설날’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시는 중기 시에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면서 후기 시로 넘어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인정이 메말라 가고 정신이 파편화되어 가는 현대인의 비극적인 삶을 사랑으로 극복하여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해보려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중년에 접어드는 시인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인식이 엿보인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는 각오에서 보이듯 나이 들어감을 의식하는 시인은 점차 삶에 대한 관용과 감정의 절제를 추구하게 된다. 이 작품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혼자 아니라고 느끼는 시적 화자의 인식이 점차 자기 자신에게서 확대되어 순수의 눈물이 다시 온 땅에 백설로 떨구어져 응답되는 전 공간적 인식으로 마무리되면서 자기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아우르는

19) 『김남조 시전집』(제1시집~15시집 합본), 국학자료원, 2005, 406~407쪽.

우주적 교감에 가 닿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준다.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랑 역시 점점 더 그 대상을 넓혀간다. 초기 시에서 노래한 사랑이 우정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랑이었다면, 중기로 접어들면서 에로스적 사랑으로 절절함이 더해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후기 시에서는 점점 전우주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더 나아가 신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어가는 것이다.

김남조 시에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자, 신에 대한 사랑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랑의 모든 것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초월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거나 완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시는 언제나 신의 세계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그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종교적인 깨달음 속에서 찾는다. 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시련 속에서 단련시킨다는 것이다, 즉, 시인은 돌층계를 오르고 자갈밭을 걷는 것처럼 힘든 자신의 삶을, 신이 자기를 사랑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긴 단련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²⁰⁾

바람 부네

바람 가는 데 세상 끝까지

바람 따라

나도 갈래

햇빛이야

청과(靑果) 연한 과육(果肉)에

20) 김재홍, 앞의 글, 303쪽; 이길연, 앞의 글, 169쪽; 오세영, 『사랑의 플라토니즘과 구원』, 『김남조 시 전집』, 국학자료원, 2005, 1123~1142쪽; 정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여성시인연구』, 평민사, 1996, 160~197쪽; 특히, 김남조 시의 주조를 사랑으로 보는 논의에 관한 문헌소개로는 이은정,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208쪽 각주 5)를 참조바람.

수태(受胎)를 시키지만
바람은 과원(果園) 번두리나 슬슬 돌며
외로운 휘파람이나마
될지 말지 하는 걸

이 세상
담길 곳 없는 이는
전생이 바람이던 게야
바람의 의관(衣冠)쓰고
나들이 온 게지

바람이 좋아
바람끼리 휘이휘이 가는 게 좋아
헤어져도 먼저 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

바람 불면
바람따라 나도 갈래
바람가는 데 멀리멀리 가서
바람의 색시나 될래

-「바람」, 전문 (『동행』, 1976)

김남조 시인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근원적인 정서 중의 하나는 그리움 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시 「바람」도 그리움의 정서를 예리한 감수성과 깔끔한 시어로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바람은 삶의 안내자이고, 사랑의 안내자라 하겠다. 시적 화자는 그 바람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은 소망을 표출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바람은 과일밭 ‘번두

리나 슬슬 돌며', 그 말의 '회파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바람은 타자로서 주변적 존재이며 햇빛처럼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바람은 떠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하는 여행객이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늘 어딘가로 떠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전생이 결국 바람이었던 것이다.

또한 시 『바람』은 나이가 들면서 긴장을 늦추고 좀 더 너그럽고 느슨해지는 시인의 마음을 노래한다. 지나온 삶이 햇빛과 같이 영글지 않고 그저 바람처럼 공허할지라도 이제까지의 삶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생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는 다시 바람이 좋다고 노래하고 있다. 갈망하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질지언정 바람과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마침내 바람의 품속에 안겨 바람의 색시가 되고 싶어 한다. 시인의 생각에 비록 초라하고 남루한 삶일지라도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긍정하고자 하는 마음, 동시에 끝없는 갈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지적 태도는 삶에 대한 긍정과 생명을 더 깊고 곡절한 애정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허무를 끌어안고 고통과 모멸을 지나 홀로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가치와 삶의 진실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진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뎨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있는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즐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생명』, 전문 (『가난한 이름에게』, 1991)

한 시인의 시세계에서 같은 단어의 반복적인 사용은 그 시인의 시세계나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생명’은 김남조 시인의 현실적 삶에 밀착된 좌표이자 시적 비유로 쓴 삶의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시 『생명』은 생명을 지닌 물상(物象)에 대해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생명의 원천과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이는 삶과 진실을 모른다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하고, 2연에서는 “진실도/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고 강조한다. 생명을 ‘진

실'로 대치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 겨울처럼 험난하고 추운 과정이라는 것을 내포하며 겨울나무의 줄기찬 인내와 추위의 날카로움을 면도날에 비유하고 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라는 표현에서 온갖 삶의 과정을 극복하고 생명의 가치를 예찬할 수 있는 자만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후기 시는 이처럼 사랑, 그리움, 다시 즐기찬 ‘생명’으로 이어지면서 초기 시의 생명의식을 심화, 완결시키고 있다. 노년의 자각 속에 생명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원숙함이 죽음의식으로 연결되는 입체적 형상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안식의 관용적 미학과 재생의지

노년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회향의 시간이 늘어나는 특징을 지닌다. 존재문제에 대해 근원적 사유를 깊이 있게 펼쳐가는 내성의 시간, 경건한 정적의 시간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뜻이다. 김남조의 후기 시는 노년에 접어든 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득한 깨달음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담히 그리고 있음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편지처럼 비밀스런
 골목길 안으로
 편지봉투 열고 들어가 불결
 산 넘고 물 건너이던 그때 그 먼 사람과
 낮선 골목길이라도 한 번
 스며들어 불결

.....

오늘은
저문 세월의 열두 대문 안에서
거뭇한 가마솥에
못해본 아쉬움의 약초즙
달이고만 있다
.....

제 등지를 찾아오는 이들
너무나도 측은하고 사랑스러워
헤프게 포옹하고 싶어
그러나
그도 저도 내 과분한 꿈의
끝자락이었을 뿐

- 『골목길』, 부분 (『귀중한 오늘』, 2007)

노년의 자리에 선 시인의 작품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정은 통회이다. 시간이 다 지나버렸다는 뼈아픈 감정은 지난 기억이 모두 얼마간 ‘비극적’이라는 인식에서 드러난다. 시 『골목길』을 살펴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못해 본 것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에 젖어 쓸쓸한 느낌을 준다. 이미 더는 대로(大路)로 빠져나갈 수 없는 노년의식이 골목길에 형상화돼 있다. 골목길은 현장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남을 뜻하며 더는 용기 있게 앞서 나갈 수 없는 처지임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인은 “그때 그 먼 사람과/ 낯선 골목길에라도 한번 스며들어 볼걸... 제 등지를 찾아오는 이들/ 너무나도 측은하고 사랑스러워/ 헤프게 포옹하고 싶어”라고 술회한다.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고단한 삶이 측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안아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낯선 골목길에라도 한번 스며들어 볼걸...” 특히 이 구절에서는 지난 날 도전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미 지난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것들과 늙고 지친 자신을 돌아보며 시인은 통회의 감정을 느낀다.

숲의 원경은 신비하다
안개창호지와 바람망사를 두른 저 곳은
다친 마음들이 쉬러 가는
지상의 끝방이려니
저곳에 나도 잠입할거나

햇빛 수련대고
나무마다 푸르게 약동하는
숲의 육신은
너네의 것, 당신들의 땅입니다라고
후련히 양보해버리고
그림자 언저리
안 보이게 물러나 앉는 저곳
고요와 평온 속으로
나는 흡수되어야 해
내 병을 고쳐야 해

부상 입은 세월도
모처럼 허리 펴고 누워 있는
만병치유의 고즈넉한 뒷방에
필히 들고 지노니
아아 진실로 진실로
나는 지치고 남루하다

위 시에서도 지난 세월은 상처로 얼룩지고 병들었으며 노년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여러 사유가 시인을 “지치고 남루하다”는 자인식에 이르게 한다. 힘없고 불품없이 노쇠해져가는 ‘늙음’은 죽음보다도 두려운 것인지 모른다. 시적 화자는 몹시 지쳐 있다고 토로한다. “부상 입은 세월도/모처럼 허리 펴고 누워 있는/만병치유의 고즈넉한 뒷방에” 물러나 고단한 삶의 여정 다 내려놓고 안식이 필요하다고 절규한다. 그리고 시적화자는 “내 병을 고쳐야 해”라는 단호하고 간절한 바람을 내뿜으며 재생의지를 보이지만 죽음을 바라보며 질병과 고독, 허망함에 시달리는 시인은 일련의 정신적 피로와 위기를 겪는다.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자책한다
 나태와 안일 그 피부병을
 자책한다
 이다지 감미로운
 시간 죽이기를
 자책한다

미지근한 온도
 희석된 긴장
 절망보다도 무개성한 허탈을
 자책한다

달력엔
 자책의 날짜들만 잇달아
 숙달 외길을 달리는
 자책 취미를
 자책한다

많지 않은 세월에
자책과 노느라
나의 밤낮이 바쁘다
하여 바쁘게
자책한다

-『자책과 놀며』, 전문 (『귀중한 오늘』, 2007)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관조와 성찰은 자기 자신에 대한 뼈저린 자책을 동반한다. 젊었을 때의 날카로움이 무디어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남은 시간을 무상하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을 ‘자책’으로 잘 형상화 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감미로운 시간 죽이기”라 여유를 부려보지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오히려 초조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책하는 시간까지 자책하는 조급함은 젊은 날 단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했던 치열한 삶에 대해, 지금 노년의 느슨한 시간들이 다소 불편하고 무의미함을 뜻한다.

위 시에서 시인은 무려 아홉 번이나 ‘자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자책’으로 몰고 간다. 이는 내면에 응크리고 있는 회한이 다시 생의 욕망으로 분출해 오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듭 반복되는 자책은 자책을 거부하며, 자책을 강조하고 동시에 자책을 비난하면서 시적 화자가 다시 일어서려 인간됨을 다하는 모습을 엿보게 한다. 다른 한 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철저한 장인 정신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시 『자책과 놀며』에서 ‘자책’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역설적 강조로 이해된다.

전날의 제 탄원은
한 발의 성급한 탄환같더니
오늘은 정운의 실오리로
옷 한 벌 얇게 지어입고
조는 듯 깨는 듯이

느슨한 간망을 아뢰나이다

세월의 즈에서
늪은 거미의 거미줄같은
실 몇 타래
깨는 듯 조는 듯이
풀리는 것이나이다

-『느슨한 기도』, 전문 (『귀중한 오늘』, 2007)

위 인용된 시 『느슨한 기도』에서 ‘느슨한’ 이 주는 의미는 해방과 자유일 수도 있다. 팽팽한 긴장의 대열에서 꼭 쥐었던 끈을 놓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드리는 편안한 기도의 순간 느낄 수 있는 해방감과 이제 삶의 어떤 바람도 기대도 줄어든 채 힘없이 웅크려 있는 노인의 자유로움을 연상하게 한다.

자신을 ‘늪은 거미’로 칭하는 시인의 자조적인 시선은 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예전 같지 않은 필력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조적인 시선은 시집 『귀중한 오늘』에 들어있는 작품 『시에게 잘못함』, 『시 쓰는 날』과 같은 시편들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와 동시에 그런 자신의 비탄의 감정을 극복하고 세월에 순응하며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안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한다.

노약자,
이 이름도 나쁘지 않아
그간에 삼만 번 가까이는
해돋이를 보고 해 아래 살아
해의 덕성과 은공을
웬만큼은 일깨웠는지라

.....

노약자,
무저항의 겸손한 이름이여
으스름 해 저물녘의
초생달빛이여
치수 혈렁하여 편한
오늘의 내 의복이네

-『노약자』, 부분 (『귀중한 오늘』, 2007)

노년의 삶에서 동반되는 원숙함과 생의 결실들에 대한 사유는 노년이 결코 퇴행이 아닌 결삭은 삶의 지혜가 무르익은 것이라 하겠다. 위 시에서 시인은 긴 삶의 여정에서 이제 비로소 안식을 주는 노년의 시간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넉넉한 긍정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김남조는 이런 마음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노인이 되었어도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전혀 아니었다. 그러나 동일한 자아에의 권태와 기묘한 난감함이 치받아 오르기를 자주했었다. 그러나 노년기도 나쁘진 않았다. 그 손님은 세월이 실려 저절로 왔을 뿐 아무런 고의도 없는 무죄한 방문객이었고 나란히 앉아 햇볕이라도 쬐이면 과일이 익듯이 순리에 따라 나름의 단맛과 자양이 고여 올 것이었다. 그 온유함과 관용, 자주 치침으로 자주 쉬어야 하는 ‘쉼’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겨보는 안식의 요람일 수 있었다.²¹⁾

그러나 이러한 긍정성을 끊임없이 균열시키는 것은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이다. 1967년 그의 나이 마흔에 모친상을 당하면서 생에 대한

21) 김남조, 『절망적 연애의 그 대상을 바라보듯이』, 『귀중한 오늘』, 시학, 2007, 160~161쪽.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남편과의 사별도 그의 시에 안타까움, 소망, 그리움 등의 정서를 형성시켰다고 본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죽음체험으로부터 수많은 타자의 죽음을 겪으며 반복 체험되어 인간의 유한성을 절감하게 한다. “병풍처럼 에워싸는 죽음들”²²⁾의 경험은 김남조 시인의 정신세계에 모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어릴 적 유일한 동생이 죽고 첫사랑의 대상이었던 교수가 납북되며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격하였고, 결국은 가족 중에 혼자만이 ‘유일한 생존자’로 남게 된 시인에게 1987년 남편과의 사별은 더욱 큰 충격적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²³⁾ 시 『이별의 사연』, 『떠나는 이를 위하여』 등 남편을 보내는 마음과 남편의 마지막 투병과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친구와 지인의 비보를 받는 심정을 담담하게 그린 시작품들이 다수다.

또한 시인 스스로 나이가 들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고를 경험하게 된다. 80을 넘긴 시인이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별과 통한의 정서를 시집 『귀중한 오늘』(2007)에 자주 드러내 보인다. 상실의 고통은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해준다. 그의 시 『시 쓰는 날 (2007)』에서 ‘나의 친구들/ 수없이 세상을 떠났으되/ 몇몇은 함께 남아 오늘 문인주소록에/ 이름 서로 기대고 섰음이라’라고 말하는 남아있는 친구들은 노년의 시기를 함께 지내고 있는 동지로서 묘사된다.

.....

친구여

우리의 고통 이해되지 못하고

남은 세월 땡벌 아래 얼음과자라 해도

괜찮다 괜찮다

22) 김남조, 앞의 글, 『시와시학』, 시와 시학사, 1997. 가을호, 45~46쪽.

23) 김남조, 『나의 이력서』, 『예술가의 삶』, 1993. 48쪽.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편, 『김남조』 구술채록, 2006.12. 26~28쪽. 참조.

고맙게 이미 오래 살았다

먼저 간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숫자 벗어버리고
피명울도 모두 고쳐

이제는 태극기 내걸고
하늘 글씨로 환하게 시를 쓰는지

아픔 더할수록
사람다우리라 믿으면
저들 만세
우리도 만세가 아닐까보나
친구여
우리 고통을 겁내지 말자

-『삶의 진맥』, 부분 (『귀중한 오늘』, 2007)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언과 같은 위 시 『삶의 진맥』에서는 노년의 고통을 이해하는 노인들 간의 연대의식을 보여주면서 죽음까지도 긍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고 죽음이 ‘숫자 벗어버리고 피명울도 고쳐’ ‘하늘 글씨로 환하게 시를 쓰는’ 자유롭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의 진입이며 다른 의미의 재생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인의 개인적 차원의 내면을 표상하고 있는 동시에,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희구하는 죽음에 대한 극복정신을 환기하고 있다.

이젠
말을 버릴까 싶네

몇 백 년 늙어버린
말과 울음에게
가서 쉬어라
가서 쉬어라고
거대한 하늘 물뿌리개
봄비 적시는 이 날에
작별하고 싶네

겨우내 노래하던 새
묘지에서도 노래하던 새
몇 백 년 그럴 양으로
성대가 더욱 트인
새여 노래여
날아가거라
날아가거라고
손짓해 보내고 싶네

소리내는 모든 건
내 하늘에서
석양으로 저물어가고
청정한 고요 하나
남은 삶의
실한 고임돌렸으면 싶네

-「고요」, 전문²⁴⁾

김남조는 죽음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성찰하며 참회하고 ‘고된 일

24) 김남조, 『김남조 시전집』(제1시집~15시집 합본), 국학자료원, 2005, 674쪽.

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죽음은 영생과 부활의 통과례라고 인식한다.²⁵⁾ 죽음은 안식일뿐이다. 그래서 새는 '묘지에서서도 노래'하며 오히려 '성대가 더욱 트인 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청정한 고요' 속에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말' 이상의 것, 말을 초월한 영적인 고요 속에 인간은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죽음은 아름다움을 성취한다. 미적 변용된 죽음은 남아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날들'도 고요하게 한다. 그리고 남은 여생의 하루하루를 더욱 '시퍼런' 생명감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건강한 역설적 힘의 미학을 보여준다.

나의 끝날

아쉬운 작별들의 후순위로

만감의 일별.....

그가 누구일까

마지막 음악이

주사액처럼 느리게 혈관으로 스미고

흐린 조명, 임종의 기도

이 때에

한 마디로 줄이는

내 최후의 축원은

누가 그 주인이리

태양 같은 시력으로

나의 숨긴 마음도 읽어낼

25) 정영애, 앞의 논문, 213쪽. 참조.

누군가 있다면
저승에 한 끝이 닿은 내 동아뺏줄의
이쪽을 잡고 있으리
천천히 놓아주리

-『끝의 사람』, 부분 (『귀중한 오늘』, 2007)

위 시에서 시인은 이제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 끝의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며 절대자에 대한 귀의의 마음을 내비친다. 시집 『동행』(1976년)이후 신에의 절대 귀의가 뚜렷이 드러나며, 그의 시는 한층 더 깊어진 신앙 속에서 통회하고 참다운 구원을 찾는다. 그리고 신에 의탁하는 서정적 화자의 자세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진다.

김남조 시에서 사랑은 꾸준히 추구되어 온 대주제이지만, 후기에 와서 시형의 엄격한 절제와 더 깊고 인내하는 원숙한 사랑을 보여준다. 김남조의 사랑 시학은 그의 문학관인 동시에 삶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의 사랑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 조금씩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사랑 자체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²⁶⁾ 지속적인 사랑의 형상화로 인해 그의 시는 인간적인 사랑의 오뇌와 인고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종교적 속죄와 눈물, 갈망과 기도를 담고 있어 비애미와 숭고미의 절정을 이룬다. 그의 노년의식도 그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 면모가 드러나고 삶의 긍정과 열정으로 엄격한 미적 욕구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남조의 후기 시에 나타나는 노년의식과 죽음의 미적 변용은 노화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퇴행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며 다시 재생의 의지로 이어가는 생명적 행보를 보여준다. 다른 아닌 시인의 생명사상과 사랑이 준열한 시 정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재생의 이상적인 비전 획

26) 김남조는 산문집 『잠시 그리고 영원히』(1964)를 시작으로 10권이 넘는 수필집을 통하여 시로써 못 다한 삶과 사랑 그리고 종교와 문학에 관한 얘기를 폭넓게 풀어 놓고 있다.

득을 성공하게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남조의 후기시에 나타난 노년의식과 죽음의 미적 변용은 노화와 죽음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재생의 의지로 새로운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인의 영생의 종교적 세계관과 연계되어 노년의식을 심화시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남조가 초기 시에서 부터 매달렸던 생명력의 확산과 사랑에 대한 집중적 탐구는 후기에 와서 노년의 관용적 미의식과 재생의지, 긍정적 인생관과 영생주의 세계관 등 새로운 희망시학으로 주제가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김남조 시인도 노년기의 질병, 외로움, 허무함 등에 대한 체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비 되어있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노화현상을 삶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시인의 개인적 차원의 내면을 표상하고 있는 동시에, 인간이 공통적으로 갈망하는 죽음의 자세를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제16시집 『귀중한 오늘』(2007)에서 노년기 자신의 의식세계를 다양하게 표출해 보인다. 확고한 신앙심에 바탕을 둔 노년기 삶의 관용과 당당함, 안식과 평화로움, 관조와 성찰 그리고 생에 대한 의지를 담담히 그리고 있음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김남조는 살아온 긴 여정의 날들에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고, 그동안 받은 은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로 젊음의 열정을 되찾는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긴 세월을 통과한 농익은 삶 속에서 시간에 순응하며 늙음까지도 감사하며, 나이 먹음에서 깨닫는 바를 순하게 그러나 엄격한 미적 욕구로 원숙한 경지를 그려내 보이고 있다. 노년기 체력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긍정과 용서와 배려의 관용적 노년의식이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존의 의미로 작품 속에 다양하

게 형상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남조, 『김남조 시전집』(제1시집~15시집 합본), 국학자료원, 2005.
김남조, 『바람세례』, 문학세계사, 1988.
김남조, 『평안을 위하여』, 서문당, 1995.
김남조, 『희망학습』, 시와 시학사, 1998.
김남조, 『영혼과 가슴』, 새미, 2004.
김남조, 『귀중한 오늘』, 시학, 2007.
김남조, 『심장이 아프다』, 문학수첩, 2013.
김남조, 「세 갈래로 쓰는 나의 자전적 에세이」, 『시와 시학』, 1997 가을호.
김남조, 「나의 시는 나의 동거인이다」, 『시문학』, 2003.2.
김남조, 「나의 이력서」, 『예술가의 삶』, 1993.

2. 단행본

- 김남조, 『나의 문학, 사랑 후에 남은 사랑』, 미래지성, 1999.
김남조, 『신앙시집 기도, 신앙 시집을 내면서』, 고요아침, 2005.
김완하, 『한국 현대시와 시정신』, 새미, 2005.
김재홍, 『한국 현대시의 사적 연구』, 일지사, 2007.
김해성, 『한국 현대 시인론』, 금강 출판사, 1973.
김효중, 『김남조의 시, 한국현대시 성찰』, 우리문학사, 1995.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편, 『김남조』 구술채록, 2006.12.
신은경, 『한국 페미니즘의 시학』, 문학사, 1996.
오세영 외,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최준식, 『죽음, 또 하나의 세계』, 동아시아, 2006.

3. 논문

- 김경복, 『김남조 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8.
- 김남조, 『세 갈래로 쓰는 나의 자전적 에세이』,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7 가을호, 45~50쪽.
- 김복순, 『한국 현대 여류시에 나타난 애정의식 연구-모운숙, 노천명, 김남조, 홍윤숙 시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김영선, 『삶과 신앙의 문학적 상상력- 김남조 시인의 생애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6권,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5, 35~44쪽.
- 김영주, 『한국 전후시의 죽음의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57쪽.
- 김재홍, 『사랑과 희망의 변증법』, 『한국 대표시인 101선집-김남조』, 문학사상사, 2002.
- 김현, 『상상력과 인간/ 시인을 찾아서-김현문학전집 3』, 문학과 지성사, 1991. 36~50쪽
- 김효중, 『김남조의 카탈릭시 연구』, 『인문과학연구』 7권, 대구카톨릭대학교, 2006 봄호, 165~186쪽.
- 배봉한, 『우리 함께 삶을 좋아합시다』, 『경향잡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1. 12~41쪽.
- 백승민, 『김남조 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 서준섭, 『정념과 사랑과 기도의 시-김남조 시 연구를 위한 노트』, 『시와시학』, 시와 시학사, 2006년 봄호, 43~ 66쪽.
- 서진영, 『김남조론-박애와 참회의 시학』, 최승호 외, 『한국 현대 시인론 2』, 다운샘, 2005. 198~199쪽.
- 송기환, 『전후시단의 형성과 전개-전후의 시와 시단』, 『한국현대시사연구』, 시학, 2007. 308쪽.
- 신은경, 『여성성의 구현으로서의 여성 텍스트와 여성문제-김남조 시를 중

- 심으로, 『한국페미니즘의 시학』, 동화서적, 1996, 190~224쪽.
- 양갑요, 『김남조 신앙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윤중영, 『1950년대 한국시정신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윤희선, 『김남조 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7.
- 이상옥, 『김남조론-생명, 사랑, 기도』, 시문학, 2003. 2. 통권 379호, 93~108쪽.
- 이순옥, 『김남조의 신앙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이승하, 『이 어두운 시대에 들려오는 사랑과 희망의 노래』, 『월간문학』, 2007, 11.
- 이은정, 『1950년대 여성시에 나타나는 애도와 우울: 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205~230쪽.
- 이제인, 『사랑의 철인, 김남조의 시세계』,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2015 봄호, 192~205쪽.
- 정동매, 『김남조 전후시에 나타난 실존의식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2013, 281~308쪽.
- 정연화, 『김남조 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정영애, 『김남조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정영자,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여성시인연구』, 평민사, 1996, 160~197쪽.
- 정현숙, 『김현승, 김남조의 시세계』, 『한국 현대시사 연구』, 시학, 2007, 334~365쪽.
- 정효구, 『해방 후 50년의 한국 여성시』, 『시와 시학』, 시와 시학사, 1995 봄호, 75~96쪽. 채영희, 『김남조 시 연구: 죽음의식과 생명의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3, 34~78쪽.
- 홍미경, 『김남조 시의 창작방법 연구: 몸살의 시학과 시적형상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2007.

Abstract

The Consciousness of Old Age in Namjo Kim's latter Poems

Koo, Myong-Sook

In this paper, I intend to explore the consciousness of old age appearing in Namjo Kim's later poems and contemplate its ontological aspect of conversion.

During 1950s, Namjo Kim was in her early days of career. She publicized lyric poetries about love and life with strong foundation of Christian ethics and humanism while Korea was still striving to overcome the chaotic aftermath and wound of the war.

In 1970s, the boundary of love expressed in Kim's works expanded and deepened. Her poems centered around the theme of love with greater focus on and respect for the absolute value of salvation with religious perspective.

However, starting from her 12th collection of poems, 'Baptism of the Wind (1988)', Namjo Kim began to publicize poems on consciousness of old age. As she consistently publicized 13rd collection 'For Peace', 14th collection 'Learning of Hope', 15th collection 'Soul and Heart', and 16th collection 'Precious Today', Kim gradually and naturally sutured the changes in her life and perspective to her poetic world.

The consciousness of old age, aesthetic transformation of death appearing in Namjo Kim's latter poems represent the poet's acceptance for aging and death as natural phenomena and her will to redeem.

Such phenomenon explains that the poet has deepened and nurtured her consciousness of old age with her religious world view based on firm belief in eternal life.

Kim's earlier works that intensely investigate proliferation of life and love have undergone the series of changes as Kim's artistry advanced into latter period. The ultimate theme of her poetries have become the aesthetics in the old age, experience of relative's death, the will to redeem, positive perspective on life, and world view with firm belief in eternal life.

However, as Namjo Kim herself cannot be entirely free from disease, loneliness, and fragility of life, Kim eagerly hopes for redemption as she experiences her own diseases as well as her family's death. She understands the aging as a positive process of life with great help of her strong religious belief. In her 16th collection 'Precious Today (2007)', Kim expresses her world of consciousness as an old lady in multifarious ways. Kim depicts with serene voice her own conscious and life that is founded in strong religious belief as composed and dignified, peaceful in mind and passionate for life.

Namjo Kim recovers youthful passion with her infinite gratitude for her long life, to share grace with others and to live the life with composed and peaceful attitude. Her latter works can be found as a new method to find the meaning for life with generous consciousness of old age full of thank and sharing.

Key words : Consciousness of old age, Life, Love, Positive view of life, Passion, aging, Loneliness, Fragility, Death, Thank, Peace, World view with belief in eternal life

- 본 논문은 2015년 7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